

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추억의 냉면

내가 냉면을 배운 건 어머니에게서였다. 대단한 냉면도 아니었고, 시내에 있는 납대문시장에서 근처 지계꾼들이 즐기는 싸구려 냉면집에 주로 갔다. 냉면에는 소고기를 넣어야 하니 마니 하는데 그 시절엔 수입 쇠고기도 없어서 시장 골목의 허름한 냉면집에서는 쓰기 힘든 재료였다. 그 집 냉면은 오직 늪은 닭고기 몇 점과 얇은 돼지고기 조각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때 막은 법을 어머니에게 배웠다. 먼저 냉면이 나오면 그릇을 손으로 든다. 차가운 기운이 손바닥에 찌릿하게 퍼져나간다. 그때는 요즘처럼 이른바 '슬러시'라고 하는 살얼음 육수기계가 전파되기 전이어서 냉면이든 콩국수든 큰 얼음조각을 한두 개 넣어주었다. 그 얼음 덕에 그릇 밖으로 물방울이 맺히도록 차가웠다. 얼음가게에서 배달해주는 것인데, 더러 깨끗하지 않은 것도 많았으리라. 냉면 먹고 배달이며 대장군 소동도 일어나곤 했으니까.

손바닥이 차가워져서 마음조차 신선해지면 먼저 육수를 한 모금 마시면서 간을 본다. 찌르르한 육수가 식도로 넘어간다. 평양냉면 육수를 처음 접하는 이들이 표현하는 "무슨 행주 뽕 물 같은" 심심하고 '슴슴함'(이북 사투리)이 느껴지는 순간이다. 나는 그 냄새가 싫어서 얼른 양념을 쳤다. 식초 두 바퀴, 겨자 약간. 그

리고는 빨간 다지기 양념 듬뿍. 우리 어릴 때는 맵은 거 못 먹고 뭐 그런 거 없었다. 그저 배불리 먹을 수만 있으면 어른 음식이라도 두렵지 않았다. 그런 시대를 살았다. 그때 그 집 냉면값이 얼마였느냐고 최근 어머니께 여쭈었더니 한 백원 했을 거라고 한다. 당시 짜장면이 그 정도 값이었다. 그렇다면 정말 싼 집이었다. 요새 냉면은 보통 짜장면의 두 배 값 내외다. 메밀값이 비싸기 때문이라는데, 계절 장사라는 이유도 있다. 냉면 경기는 5월에 시작해서 추석 전에 끝난다. 이른날 집은 달하지만 여전히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여름 한 철과는 냉면값을 세계 받는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그런 가게에 백원짜리 냉면도 부담스러운 집안 사정이라 몇 가지 냉면을 집에서 해먹었다. 하나는 그냥 소면 사다가 차가운 오이냉국에 말아먹거나 열무 열갈이 김치에 사운 얼음덩어리 넉넉히 쪼아서 깨어 넣고 냉면을 말았다. 요즘 풍속은 밀가루로 만든 면은 냉면으로 치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밀이든 메밀이든 차게 말아 먹는 건 다 냉면이라 불렀다.

그런 밀가루 냉면도 좋았지만 제일 기다리는 건 청수 냉면이었다. 상표 이름인데 가게에서 사서 만들어먹는 냉면으로는 당시 독보적인 존재여서 아직도 그리 부르

는 어른들이 많다. 지역마다 달랐겠지만, 서울은 하여튼 청수였다. 여름이면 얼마나 심부름을 많이 했는지 아직도 그 포장지가 또렷하게 기억난다. 파란색 포장지에 상표가 써 있고, 마른 면과 국물용 가루가 들어 있었다. "면을 ○번 삶고 찬물에 행군 뒤 계란 쇠고기 등을 곁들여 드시면 맛이 좋습니다"라는 조리 안내문이 적혀 있던 것도 생각난다. 언감생심 쇠고기는 넣을 수 없었고 계란 정도는 삶아 올렸다. 오이 썰고 얼음 준비하는 일도 냉면 만들기의 필수였다. 나중에 냉장고를 들어면서 얼음은 더 이상 사오지 않았지만, 새끼줄로 묶어 팔던 조각 얼음을 들고 녹을 세라 번개처럼 골목길을 달리던 기억.

그 상표의 냉면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 마트에선 무슨 영문인지 잘 보이지 않는다. 먹고싶을 때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산다. 옛날 먹던 바로 그 맛이다. 요즘 마트에서는 식품대기업에서 더 그럴 듯하게 '파는 냉면'처럼 촉촉한 메밀면을 뽑아 만든 이른바 생면이 팔린다. 내가 먹는 마른 면보다 훨씬 고급 면이고 맛도 괜찮다. 그런데도 나는 여름이면 그 마른 면에 가루스프 들어 있던 저렴한 냉면이 더 생각난다. 음식은 추억이란 말은 그래서 옳다.

<음식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



서요섭
조선대학교병원
영상치의학과 교수

"치과에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찍을 때 목걸이, 귀걸이 꼭 빼야 하나요? 틀니는요? 옷도 신경써야 하나요?"

치과병원을 찾은 환자 대다수는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찍을 때면 귀걸이와 목걸이를 꼭 빼야 하는지를 묻는다. 대답은 당연히 '꼭 빼야 합니다. 꼭 빼고 찍으세요'이다.

금속류의 귀걸이나 목걸이는 방사선을 아주 많이 흡수하므로 귀걸이나 목걸이에 의해 다른 인체 조직들이 가려져 방사선 영상에서 정상 해부학적 구조를 관찰할 수 없게 만든다. 목걸이를 하게 되면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 아래턱의 앞쪽 부분에 목걸이에 의한 하얀 음영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래턱의 앞부분에 위치한 골과 치아 등을 제대로 관찰할 수 없게 된다. 즉, 영상 진단

이 불가능한 부위가 발생하는 것이다. 귀걸이는 반대측 귀와 하악과두(아래턱뼈의 일종) 부위, 하악지(아래턱 뼈에서 양쪽 옆에 수직으로 뻗은 부분), 상악 어금니 부위의 치아, 상악동, 안와 부위 등의 해부학적 구조물을 관찰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는데 파노라마 방사선촬영기의 특징에 따라서 그리고 귀걸이가 귀의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크기로 위치하는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

귀걸이나 목걸이에 의해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 관찰이 불가능한 부위가 발생하면, 이 부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어렵다. 이 부위에 대한 방사선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귀걸이와 목걸이를 빼고 파노라마 방사선촬영을 다시 하거나 다른 방사선촬영을 실시해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추가적인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 노출이 발생하고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며 추가 비용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환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 먼저 귀걸이나 목걸이를 착용하고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면 진단이 불가능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귀걸이나 목걸이 때문에 진단이 불가능한 부분을 진단하기 위해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촬영을 추가로 해야 할 수 있고 이는 시간과

노력, 비용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그러면 답은 간단하다. 파노라마 방사선촬영 시 무조건 귀걸이와 목걸이를 빼고 찍어야 한다.

목걸이나 귀걸이 이외에도 이처럼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촬영에서 진단에 영향을 주는 것이 또 있을까? 대표적으로 틀니가 있고 귀, 뺨, 입술 등의 안면부와 혀 등의 피어싱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옷의 목 뒤쪽에 금속 상표가 있는 경우와 목 부위에 옷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금속성의 실이 들어가 있는 경우, 접이나 주리닝의 금속 지퍼를 위쪽까지 잠그거나 목 옆으로 펴진 경우도 영향을 끼친다.

치과에서 진단에 사용되는 방사선이 저선량이고 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되지만, 아무리 소량의 방사선이라도 유해 효과는 존재하며 따라서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촬영을 꼭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사선 노출로 최대한의 진단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치과에서 파노라마 방사선촬영을 할 때 귀걸이, 목걸이, 각종 피어싱, 틀니가 있으면 빼고 목부위의 옷 등을 신경 써서 진단에 방해가 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양질의 방사선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촬영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환자의 노력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고

세계 헌혈의 날을 맞이하며



김동수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원장

우리나라의 혈액 사업은 1954년 국립혈액원이 개원하면서 시작되었다. 정부는 1958년 2월 국립혈액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한다. 이후 최초의 헌혈은 공식 기록상 1960년 4월, 4·19 혁명 당시 부상자를 위한 시민 헌혈자 62명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렇게 시작된 헌혈은 2018년 300만 명을 달성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는 헌혈 버스를 멈추게 하였고 헌혈인구를 30만 명 가까이 대폭 감소시켰다. 지난해 앤데미 선언은 헌혈인구 회복이라는 기대감을 주었지만 현재까지도 좀처럼 확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처럼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복이 더디고 정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요인 중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절대적인데 아니까 싶다. 이를 대비하여 정부는 혈액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혈액관리법에 넣어 강화했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조례를 통해 헌혈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헌혈 기부분과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한 정책, 제도,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혈장려를 위한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제

로 시행되지 않아 코로나19 시기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되자 수혈자와 그 가족들은 헌혈자를 직접 구해야 했고 이전보다 7배가 넘는 수의 지정헌혈이 이루어졌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혈액사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우리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헌혈자를 위한 예산지원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규모가 비슷한 시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여기에 헌혈인구 회복에 있어 또 하나의 커다란 장애는 교육부가 2024년 대학입시 교외 봉사활동 시간을 학생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헌혈의 집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주말이나 방학 중에 고등학생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전체 헌혈자 중에서 학기 중에 고등학생 헌혈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혈액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교가 있지만 수업 지장을 우려해 헌혈 버스를 주저하는 학교도 있는 실정이다. 이대로 고등학생의 헌혈 감소가 개선되지 않으면 장래의 전체적인 헌혈자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매년 6월 14일은 세계 헌혈자의 날이다. 2004년부터 세계보건기구, 국제적십자연맹, 국제헌혈자조직연맹, 국제수혈학회가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헌혈자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날로 제정한 것이다. 바로 이날의 의미를 잘 구현하는 것이 대책이 아닐까 싶다.

우선 헌혈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제기된 교육부 차원에서 헌혈 교육 의무화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러던 차에 최근 전국 최초로 수업 시간에 조종교 학생과, 교

직원에 대한 헌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헌혈 교육 활성화 조례가 발의되었다. 이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라며 직장인에게도 헌혈을 4대 폭력교육처럼 법정 교육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헌혈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을 향상시키고 헌혈 기부문화를 확산하여 안정적 혈액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헌혈자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각종 예우를 확대하여야 한다. 헌혈 횟수에 따른 유공패 이외에도 지자체 단체장 표창, 정부포상이 늘어나야 한다. 다행히 최근 보건복지부와 함께 400회 이상 헌혈자에게는 헌혈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드리 헌혈자 예우문화를 위한 전향적인 한 걸음을 내디뎠다. 올해도 우리 혈액원에서는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하고 헌혈자에 대한 포상과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헌혈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총상 환자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수많은 시민이 출저어 헌혈하는 행렬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당시 피가 부족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금도 270여만 명의 헌혈자들이 병상에 고통받는 수혈자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제21회 헌혈자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이들의 숭고한 행동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내자.

그리고 아직까지 참여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용기를 내 헌혈에 동참해보자. 오래전에 헌혈했던 사람들도 이제부터라도 다시 참여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도 감사와 존경을 받는 헌혈자가 되길 바란다.

社說

공항 이전 '3자 회동' 군공항 해법 물꼬 트길

무안군의 반대로 답보 상태에 놓인 광주 군공항의 이전 문제가 해당 자치단체장의 '3자 회동'으로 물꼬를 틀지 관심이 다.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과 관련한 해당 자치단체는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으로 이들 단체장들이 7월 중 만남을 갖기로 한 데 따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발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1일 입정문 발표를 통해 "오는 무안군을 방문해 (민간·군) 통합공항 이전에 대한 군민과의 직접 대화를 하려 했으나 전남도와 무안군의 요청에 따라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 중 열릴 (광주시장·전남지사·무안군수) 3자 회동을 통해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이를 위한 실무회의도 조속히 열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의 발표가 있자 전남도와 무안군도 구체적인 날짜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7월 중 3자 회동을 갖기로 했다고 확인해 주었다.

민선 7기 시절, 광주공항 무안 이전을 놓고 당사자인 3자가 만남을 가진 적은

있었지만 민선 8기 들어서는 처음이다. 3자 회동이 이뤄지게 된 데는 지난 5월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산 무안군수의 2차 2자 회동에서 어느 정도 교감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월 1차 회동 당시 군공항 언급 자체를 거부했던 김 군수가 2차 회동에서는 관련 논의를 일부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3자 회동으로까지 발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 군수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로 한 것만 하더라도 큰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적극 환영할 일이다. 무조건 반대하던 기존 입장과 달리 대화에 응의가 있다는 메시지로 읽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시기까지 정해 3자 회동을 하기로 한 만큼 무엇보다도 광주·전남 상생이라는 큰 틀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를 기대한다. 협상이 성공하려면 자치단체장들이 테이블에 앉기 전에 실무자간 충분한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 3자 회동이 군공항 해법의 물꼬가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광주 특산품 '무등산 수박' 살릴 묘책 없나

광주대표 특산물인 '무등산수박' (일명 푸랭이)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이를 극복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등산수박의 명맥이 끊긴다는 우려에 지난해 4월 광주시와 농업기술센터, 전남대 등이 참여한 무등산수박 육성 태스크포스(TF)팀까지 꾸려졌다. TF팀은 줄어가는 생산량에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무등산수박을 재배하는 아홉 농가 중 한 농가를 대상으로 수박 생육에 도움이 되는 미생물을 호스를 거쳐 3.3㎡(1평)당 2ℓ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등 지원 활동을 펼쳤다. 광주시도 그동안 지원하던 비료 외에도 올해 새롭게 아외 재배 농가를 위해 비닐하우스 설치(시비·구비 각 30%, 개인 부담 40%)를 도왔다.

하지만 TF팀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고 1년 만에 별다른 성과 없이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다. 지난해 두 차례 회의와 두 차례 현장 방문에 그쳤던 TF팀은 올해는 단 한 건의 활동도 없이 조직만 유지할 뿐 무등산수박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9곳이던 재배농가 중 한 곳이 재배를 포기하면서 재배농가가 8가구로 줄었다. 1200통을 생산해 역대 최저 생산량을 기록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수확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라고 관측되면서 재배농가의 사기가 깊어지고 있다.

농업 인구가 고령화하면서 갈수록 줄고 있고 심각한 기후변화에 농사짓기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현장에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금을 인상했다는 명성을 이어가는 차원에서라도 유관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시들어가는 무등산수박을 살릴 묘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킬빌'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여주인공 우마 서먼의 결투 신이다. 칼잡이들에 둘러싸인 주인공이 재빠른 솜씨로 한 명 한 명씩 해치우는 것이 익숙하다 싶은데, 그녀가 입고 있는 검은 줄무늬의 노란색 '추리닝(운동복)'을 보는 순간 바로 이 남자가 떠오른다.

다. 부르스리(Bruce Lee)로 불렸던 리 사오룡(이소룡·1940~1973)이다. 어린 시절 TV를 통해 넷을 놓고 보았던 영화 '용장호투' 속의 그는 뛰어난 무술로 당시 큰 서양 사람들을 쓰러트리는 영웅이었다.

이소룡

'정무론', '맹룡과강' 등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이소룡은 '영화처럼' 갑자기 세상을 떠났지만 5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곁에 있다. 수많은 영화와 게임, 애니메이션 등에는 그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가 깔고 없이 등장한다.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도 그가 격투를 시작할 때 내지르는 괴성과 엄지손가락으로 코를 문지르는 모습, 노란 운동복과 쌍절곤은 알고 있다.

워싱턴주립대 철학과를 중퇴한 그는 뛰어난 공후 실력과 함께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이소룡 어록'으로

불리며 회자된다. 영국 BBC가 제작한 'Bruce Lee: A Life in Ten Pictures'는 이소룡의 결정적인 순간을 열 장의 사진으로 풀어낸 작품인데, "물처럼 되어라(Be Water). 친구여, 물은 가장 부드러운 물질이지만 가장 단단한 바위도 뚫는다"라고 말하는 그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다.

이소룡 사후, 그를 대신했던 배우들이 등장하는 다큐멘터리가 19일 개봉한다. 이소룡의 열혈팬인 코미디언 이경규가 수입한 데이비드 그레고리 감독의 '이소룡'에는 이소룡을 닮은 외모에 뛰어난 무술 실력을 갖춘 네 명의 배우들이 출연한다. 한국, 대만, 미얀마, 홍콩 출신인 이들은 여소룡, 거룡, 양소룡으로 불렸고 이소룡이 남긴 작품의 속편과 전기영화의 주인공으로 활약했다.

"이소룡만 안 닮았어도 더 유명해질 수 있었을 텐데"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는 이들은 노인이 된 지금도 절도 있는 액션을 선보이며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 본다. 시대의 아이콘 '이소룡'이라는 인물을 탐험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 흥미롭다.

/김미은 여론매체부장 mekim@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